전남 "황토살포 금지" 해수부 "피해지원 없다"

적조방제 논란 확산

◇해수부·전남도 '적조 황토 살포' 논란

◆현 적조피해 보상
- 정부 35%
- 전남도 7.5%
- 시·군 7.5%
- 융자 30%
- 어민 부담 20%

◆전남도 입장
- 어류폐사 피해액보다 황토살포피해액 훨씬 많아
- 황토살포 대신 양식장물고기 풀어줘야
- 또다른 환경오염 유발할 수도

◆해수부 경고
- 황토는 유해적조생물제거에 효과적
- 시험결과 참돔·굴 등 어패류 생존 영향 없어
- "황토살포 안 해 발생한 피해는 지원 않겠다" 공문

전남도의 적조 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 금지 방침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황토를 뿌리지 않아 발생한 적조 피해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 '황토 살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적조주의보 발령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초기부터 황토살포, 피해발생 전 방류 등을 지시했다.

해수부는 지난 22일에도 황토살포를 요구하는 여수지역 어민 민원과 관련해 전남도에 '황토 미살포에 따른 피해발생 시 국고지원 대상 제외'라는 엄중 경고 공문도 보냈다.

현재 적조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정부 35%, 전남도 7.5%, 일선 시·군 7.5%, 융자 30%, 어민 부담 20%로 진행된다. 정부는 황토를 살포하지 않겠다는 전남지역에는 그동안 지원했던 35%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효과 논란을 빚고 있는 황토 살포 대신, 양식장 물고기를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28곳에 적조를 대비해 쌓아둔 12만5000t의 황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어민들이 소형 어선을 동원, 물보라를 일으켜 양식장에 다가오는 적조띠를 흩뿌리는 식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황토 살포를 놓고 정부와 전남도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황토의 효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70여 종의 적조 구제 물질이 개발되어 있으나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황토를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4만6000t의 황토를 뿌렸던 2002년엔 어류폐사 등 피해액이 30억원이었지만, 6만3000t의 황토를 살포했던 2003년엔 피해액이 176억원으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황토살포가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한쪽에서는 황토를 살포하고, 다른 해역에서는 물고기를 풀어줘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만큼 차라리 물고기를 풀어주는데 집중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이다.

반면, 국립수산과학원은 25일 "황토살포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황토가 유해 적조생물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산과학원이 1999년부터 황토가 저서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참돔, 넙치, 조피볼락, 굴, 홍합 등의 생존시험 결과에서 3%의 농도에서 생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되레 굴, 피조개 등의 패류는 생존율이 높았다.

황토는 응집력이 강해 적조생물에 달라붙어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의 연결 부위를 끊고 세포가 파괴된 적조생물은 바닥으로 가라 앉으면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경남 통영지역 가두리 양식장 4곳에서 쥐치와 참돔 등 양식어류 10만 마리 이상이 폐사,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檢 '전두환 비자금' 해외 사법공조 검토

친인척 등 40여명 출금… 삼성생명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과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사법공조행청을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전씨 일가와 친인척, 주변 인물 등 40여명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하는 한편 삼성생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집행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해외 비자금 추적을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싱가포르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 등에 조만간 사법공조를요청할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인영국령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의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 계좌에 주목하고있다.

일각에서는 재국씨가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만든 뒤 100만 달러 이상을 한번에 입금하고 5년여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빼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위장기업'(페이퍼컴퍼니)을 세워 해당 사업체의 계좌를이용했을가능성, 실존회사를'전위사업체'로 활용해 은닉재산을 이 회사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썼을 가능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 이들 수법은 자금 세탁의 전형적인유형가운데하나다.

검찰은 아울러 전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 비자금 운용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한 인물들과 부동산·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 등 40여명을출금조치한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또 시중은행 대여금고 7개에서 확보한 예금통장 50여개의 잔고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는등계좌추적작업을하고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 시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지난 24일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씨 등 전두환 일가의 추가 보험 내역에대한자료를압수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전 전 대통령이 일가나 친인척, 최측근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비자금을 숨겼을 가능성이작지않기때문이다. /연합뉴스

서울시도 전두환 미납세금 징수 추진

체납액 4100만원… 검찰에 '참가압류' 통지

서울시가 3년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세금 징수에 나섰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고, 가산금까지 합하면 채납액은 41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불상, 공예품 등을 압류하자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에 보내 압류 의사를 밝혔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그러나 조세는 추징금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게 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세금은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파악해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연합뉴스

적조방제 예산 고작 7억원… 매년 감소

김영록 의원 "하루분에도 못미쳐… 확충 시급"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25일 "올해 적조방제 예산이 단 7억원에 불과해 적조 확산시 양식어업인 피해가 클 것"이라며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풍·적조·해파리 등 재해에 대비한 해양수산부 재해대책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 적조방제예산은 7억원에 불과해 적조 확산시 단 하루분 예산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적조는 지난 20일 나로도 인근에서 발생했으나 3일만인 23일에 고흥, 여수 해역에서 경남 통영해역까지 적조경보가 발령되는 등 남부해역의 폭염으로 예년보다 빨리 적조가 발생하고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적조방제에 투입되는 선박이 10척일 경우, 선박대여료 300만원, 인건비, 황토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일 7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만성 적조 발생 지역인 거제·통영·남해·여수·장흥·고흥·완도지역을 방제하면 딱 하루치 적조방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적조 방제 예산은 2010년 10억3000만원, 2011년 7억8000만원, 2012년 5억3000만원, 올 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밀·콩·옥수수 자급률 1.6% 불과

쌀 제외한 곡물자급률 세계 최하위권

한국의 밀·콩·옥수수 자급률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쌀을 뺀 곡물 자급률이 세계 최하위권에 속 셈이다.

25일 한국은행이 입수한 미국 농무부의 최근 추정 자료에 따르면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 통계가 있는 세계 130여개국 중 한국의 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12/2013 양곡연도 기준 1.6%로 하위 16번째에 불과했다. 2012/2013 양곡연도는 수확후 1년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밀은 작년 6월초부터 올해 5월말까지다.

한국의 자급률은 역시 대규모 곡물 수입국인 일본(4.3%)이나 중동권의 요르단(1.9%), 레바논(15.2%), 리비아(4.8%), 이스라엘(5.3%)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을 보면 미국(119.9%), 캐나다(188.1%), 호주(302.0%) 등 농산물 수출국은 자급률 100%를 넘었고 27개 회원국(7월1일 가입 크로아티아 제외)이 가입한 유럽연합(EU)은 94.2%, 중국은 84.7%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의 2012/2013 양곡연도 기준 곡물별 자급률은 옥수수 1.0%, 밀 0.6%, 콩 9.8%로 각각 추정됐다.

/연합뉴스

국립광주과학관 30일 임시 개관

국립광주과학관이 오는 30일부터 임시 개관한다. 또 직원 채용은 블라인드 면접 등 전형방법을 보완한 뒤 재개할 방침이어서 채용시기는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17면〉

지난 19일 취임한 최은철 초대 국립광주과학관장은 25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올 가을 정식 개관에 앞서 여름방학에 맞춰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매주 3일(화·목·토)동안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부분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시 개관 동안에는 관람 편의와 안전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예약은 전화(062-960-6123~7)나 홈페이지(www.gn-sm.go.kr)에서 가능하다. 다만, 홈페이지 예약은 콘텐츠 보완 구축 중이어서 다음달 5일부터 가능하다.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 여파로 직원 채용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최 관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전형방법을 보완하고 있다"며 "지원자들에게 조만간 메일을 통해 전형방법을 알리겠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과학관은 임시개관 기간 동안 전시관 운영 업무를 지원할 단기운영인력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관람객 안내 및 질서·안전유지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면 '후쿠시마 원전'서 계속

그는 또 "한국 원전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원전을 가동하려면 보다 안전한 조치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겉으론 평온해보이지만 인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위협은 계속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잠재적 핵폭탄'으로 불리는 원자력발전소가 아직도 방사성물질을 내뿜고,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원전을 폐기하기까지 최소 30년에서 4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 날도 '원전 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내용'을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도쿄전력은 지난 22일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전 단지 내 관측용 우물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잇달아 검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오염수가 지하를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인정했다.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상가대출 * 아파트대출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차량대출 * 기타대출

신 용 / 정책자금대출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햇살론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신용대출·일일상환 대출
* 직장인 햇살론 - 1,000만원 한도
직장인 신용대출·마이너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한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본 점 | 궁동 예술의거리 010-3603-7981
|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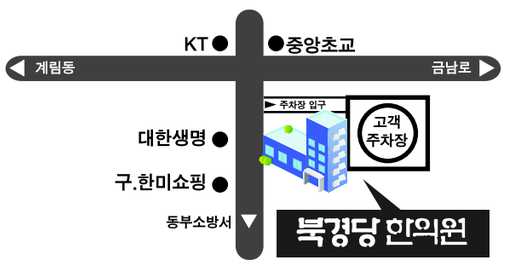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16석 룸완비)

구 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 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 점
YONAMJA

매콤한 요남자 필라프 ₩7,900
YONAMJA Spicy sauce pilaf

봉골레 Vongole Half ₩10,800

베이컨 까르보나라 Bacon Carbonara Half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Half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Half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r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